여래장사상의 전거 일승사상의 모태

〈典據〉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① 왕비의 발원이 담긴 경전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코오살라국에 바사닉(Prasenajit)왕이 있었다. 이 왕은 석가모니부처님과 인연이 깊었던 왕이다. 부처님과 나이가 동갑이었다 하며 또 부처님이 성도하던 해에 이 왕은 왕위에 즉위했다는 설이 있다. 〈능엄경〉에는 부처님과 불생불멸하는 여래장묘진여성에 대하여 부처님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왕의 태자 기타와 신하 수달타가 기원정사를 지어 부처님께 바쳤다.

이 왕에게 스리말라(Srimala)라는 공주가 있었다. 공주의 이름 스리말라를 한역에서는 승만(勝鬘)으로 번역했다. 매우 영민한 여성으로 과년하여 아유사국의 우칭왕(友稱王)에게 시집을 가 왕비가 된다. 〈승만경〉에는 승만 부인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연유를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아유사국의 왕에게 시집을 가 왕비가 된 딸 승만 부인에게 친정 부모인 바사닉왕과 말리 부인이 편지를 써 찬다라라는 궁녀에게 주면서 승만에게 전하고 오라는 명을 내린다. 이 편지에 바사닉왕과 말리 부인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면서 딸 승만에게도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권했던 것이다. 편지를 받은 승만 부인은 환희심을 내어 곧 부처님을 찬탄하고 참된 신심을 발하게 되는데 부처님이 이를 증명하고 인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전이다. 따라서 이 경전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승만 부인이며 다른 보살이나 제자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유통분 마지막 장인 승만장에 아란의 이름이 나오고 부처님이 제석천에게 경을 잘 받아 지니라 당부하는 말씀이 있다. 일설에는 승만부인이 바사닉왕의 왕비였다는 설도 있다. 율장인 〈오분율(五分律)〉이나 용수의 〈지도론〉 등에는 바사닉 왕의 비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승만경〉의 경문 안에서는 공주로 등장한다.

이 경의 원 이름은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勝鬘獅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으로 승만 부인이 일승의 대방편을 널리 펴기 위하여 사자후한 것을 담은 경이라는 뜻이다.

이 경은 〈유마경〉과 함께 재가 불자에 의해 설해진 경으로 대승의 이념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경이다 B.C 3~4세기경에 성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처음 한역된 것은 북양의 담무참에 의해서 였으나 436년에 구나발타라가 번역한 것이 널리 유통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때 수나라에 갔다 돌아온 안홍(安弘) 법사에 의해 전래되어 연구된 경으로 원효 스님도 이 경을 매우 중시하여 자신의 저술에 이 경을 자주 인용하였다. 부모 권유로 발심해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법신행의 자기 원력을 말한 내용인 이 경이 높게 평가되는 것은 인도 부파불교시대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교리의 난맥상을 탈피해 실제적인 인간의 현실생활에 대승의 정신을 회향시킨 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이 여래장사상의 전거(典據)가 되는 대표적인 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울러 일승사상의 모태가 되는 경이기도 하다.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경본은 전문을 15장으로 나누고 있다. 제1 '여래진실공덕장' 에는 부모가 보낸 편지를 받아 읽은 승만이 부처님을 찬탄한다. 이때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 승만의 앞에 무비신(無比身)을 나타내어 승만의 귀의를 받으며 장차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授記)를 준다. 〈승만경〉의 중요한 내용은 두 번째 장인 '십대수장' 에 설해져 있는 승만 부인이 세운 열 가지 서원이다.

이 경은 대승을 극구 찬탄하는 대승찬탄경이다. 이 경의 근본 주제라 할 수 있는 일승사상과 여래장사상은 바로 대승의 올바른 진리를 뜻하는 말이다. 대승이 곧 불승이며, 야뇩지라는 큰 못에서 여덟 개의 강이 흘러나오고 대지에 의하여 일체의 씨앗이 자라나듯 대승에 의해서 세간 출세간의 모든 법이 나온다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법화경〉의 대의인 회삼승 귀일승의 뜻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 이 경에서 승만 부인이 세운 서원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법을 수호하겠다는 장렬한 의지를 드러낸 서원이다. 올바른 진리 곧 정법을 수호하고 나쁜 법에 빠진 사람들을 조복 받도록 하겠다는 마지막 다짐이 감동을 주는 대목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중생구제 대승보살도 실천하는 수행자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㉔ 관음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어떠한 신통력과 위신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관세음' 이란 명호를 자세히 살펴보면 관세음보살의 신통력과 위신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관세음(觀世音)' 이란 명호는 본래 인도 산스크리트어인 'Avalokiteśvara' 를 한역(漢譯)한 것입니다. 이 'Avalokiteśvara' 의 의미는 '세속을 관찰하는 자재신(自在神)' 또는 '널리 관하는 자재신' 또는 '세간의 음성을 듣는 자'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Avalokiteśvara' 를 중국 서진(西晉) 시대 이전에는 '광세음보살' 이라 한역하였고, 구마라즙은 '관세음보살' 이라 번역하고, 현장 스님은 '관자재보살' 이라 번역하였습니다. 또 'Avalokiteśvara' 를 관세자재(觀世自在), 관세음자재(觀世音自在), 관음(觀音)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의 명호 속에는 힌두교 자재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관세음' 이란 명호에는 힌두교의 창조신인 '브라흐만(Brahman)' 의 인격적인 신인 자재신(自在神)의 권능(權能)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음의 인도 범어인 'Avalokiteśvara' 는 '아바로키타(Avalokite)' 와 '이슈와라(Īśvara)' 가 합성된 말인데 이 중 '이슈와라(Īśvara)' 는 '자재신' 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재신(Īśvara)' 은 인도 힌두교의 창조신인 '브라흐만(Brahman)' 의 지위와 상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흐만 사상에 있어서 우주의 원리였던 브라흐만(梵,Brahman)을 우파니샤드 시대에 와서는 인격적인 신의 모습으로 표상되면서 자재천(Īśvara)의 신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자재천(Īśvara)은 시바(Śiva)신, 비슈뉴(Viṣṇu)신과 함께 힌두교의 삼신(三神)으로 신앙되고 있는 힌두교 최고의 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음' 의 명호 속에는 인도 범어인 'Avalokiteśvara' 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힌두교 최고의 신인 '자재천(Īśvara)신' , '시바신(Śiva)' 과 '비슈뉴신(Viṣṇu)' 의 신통력과 위신력 등을 감안하여 '관세음' 이라고 한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슈뉴신이 갖고 있는 변화응신의 화신사상(化身思想)은 관세음보살의 응현적(應現的) 요소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와 같이 힌두교의 자재신의 특징과 너무나 닮아 있는 관세음보살은 '자재천(Īśvara)신' , '시바신(Śiva)' 과 '비슈뉴신(Viṣṇu)' 의 신통력과 위신력을 함께 갖추고 제법의 진리와 중생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자재하신 능력을 갖추신 자재신(自在神)으로서의 대보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님은 세간의 음성을 듣고 세간의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 능력을 갖춘 구세자인 것입니다. 대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는 관음신앙이 대승불교 초기부터 대승불교 중기와 대승불교 후기를 이어 밀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불자들에게 절대적 구원자로 널리 신앙되어 왔던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보살이란 개념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초기불교에서는 '보살' 이라고 하면 석가모니불의 〈전생담〉에서와 같이 석가모니불의 전생보살로서 부처님에게서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은 석가보살이나 미래의 미륵불이 될 미륵보살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중생구제를 위해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성불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수행자들을 보살이라 불렀기 때문에 대승불교 시대에 많은 보살들이 출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① '성품'은 번뇌가 없다

"하나를 하나로 보아야"

'바쁜가?' 세상에는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밖은, 조건 지어지고 변하는 것뿐이라서 아무것도 보고 들어 머물 것이 없다. 실상을 현혹하는 허깨비들만 바삐 오고 바삐 갈 뿐이다. 그러므로 바쁘지 않다. '바쁘지 않은가?'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로 잘 알아서 바르게 사유함으로써 이 생에 적용하고 회향하며 살아가기에 삶은 순간이고 찰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바쁘고 바쁘다.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쓰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생겨난 번뇌는 더욱 증가한다. 그러나 이치에 맞게 정신을 쓰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는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긴 번뇌는 끊어진다.

이치에 맞는 정신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하나를 하나로 보는 것이다. 이보다 좋은 이치에 맞는 정신 활동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 다. '하나' 는 항상 하나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하나' 를 하나로 보지 못하고 여럿으로 분열시켜 본다.

왜일까?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아주 많은 생 동안의 경험과 개체들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 몸이라는 하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 속에 아주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하나를 하나로 보려고 하는데, 잠재된 채 자꾸 방해를 한다. 실상은 '하나' 이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 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하나' 일 뿐이다. 그저 '하나' 였는데 내면의 캐릭터는 인연에 따라 다른 캐릭터를 가지며, 그 인연에서의 봄을 갖는다. 실상인 '하나' 로 보려 해도 캐릭터의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성품은 아무 에너지가 없는 '바라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쓰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하나' 로 보면 번뇌가 생겨나지 않는다. '하나' 인 것을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구분하며, 내면에서 분별심을 낼수록 생겨나지 않은 번뇌들이 생겨난다. 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면, 번뇌는 그것을 따라 맞물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온다.

이것은 하나를 하나로 보지 않아서 생긴 번뇌이므로 원래 있는 번뇌가 아니라 만들어진 번뇌다. 이 만들어진 번뇌 즉, 없는 번뇌를 우리 자신이 만들고 키워 고통 받으며, 이 고통을 다른 대상에게 전가시켜 만족하거나 자괴감을 느끼는 어리석은 쇼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쇼를 마치는 방법은 쉽다. '내가 하나를 하나로 보지 못함에서 생긴 병이구나' 이렇게 알면 모든 번뇌는 제거된다. 하나를 하나로 보게 되면 아직 생겨나지 않는 번뇌는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번뇌는 끊어진다. '하나' 이외에 다른 것은 볼 게 없다. 그 하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다. 그 하나는 느낌도 지각도 의도도 의식도 아니다.

'나의 생각' 이 있는 한 '하나' 로 부처님 말씀을 읽어 낼 수가 없다. 앞으로 우리가 〈맛지마니까야〉를 함께 읽어가다 보면 저절로 '하나' 에 녹아 있게 될 것이다.

한 수행승이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하고 묻자, 조주 선사가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베적삼 한 벌을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일곱 근이더라."

하나를 이야기 했는데, 일곱 근을 말씀하셨다. 똑같은 소리인데 소리는 다르게 들린다. 항상 함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끄집어내어 둘로 만드니, 일곱 근으로 막아버렸다. 일곱 근 밑에는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렇게 많지만 끄집어낼 수가 없다. 뱀은 독을 가지고 있는데 왜 독에 죽지 않는가? 자신의 독을 끄집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2022 謹賀新年 임인년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주지 진 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Tel 055)352-1150

